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한국계 유명 스탠드업 코미디언 헨리조가 시민협회(KACL)의 초청으로 25일 서머빌 아츠오브디아메리에서 공연했다. 사진은 헨리 조가 공연 후 관객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헨리조, "중국·인도계의 관중은 99% 중국·인도인, 내 관중은 98%가 백인"

시민협회, 보스톤 코미디나잇 매진 대성황, 관중은 98%가 한인
미국 한국계 코미디언의 선구자, 유일하게 쉬는 주간에 보스톤 공연
인턴 장학금 모금 위한 행사, 보스톤 출신 헬렌 홍, 미키일라 캠벨도 참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한국계 코미디언으로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며 큰 성공을 이끌어 낸 헨리 조(62)가 보스톤에 왔다. 한국계 코미디언 헨리조를 이 작은(?) 보스톤에서 보게 될 줄은 지금껏 생각치 못했다. 이곳 한인들에게 보스톤은 늘 뉴욕시와 견주는 커다란 전통의 도시나, 인구적인 관점에

(전체 기사 읽기)
서는 약 70만에 못미치는 작은 도시다. 한인 인구도 뉴잉글랜드까지 끌어모으면 겨우 4-5만 정도 될 정도다. 보스톤과 연고가 없는 헨리조가 이곳을, 그것도 한인단체 시민협회(KACL)가 개최한 코미디 나잇에 참여하게 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9월 25일 보스톤 인접 도시인 서머빌(Somerville)의 아츠 댓 >>8면으로 계속

ACA건강보험 확대 보조금, 왜 미 정부 섰다운 갈등의 핵심인가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팬데믹 시기에 도입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 오바마케어(ACA, Affordable Care Act) 확대 보조금(enhanced subsidies)제도의 처리가 정부 섰다운 해법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약 2천240만 명이 '오바마케어' (ACA, 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 보조금을 받고 있다.
공화당은 우선 기존 정부 지출 수준을 단기 연장해 협상 시간을 벌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ACA 보조금 연장이 빠진 임시 예산안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들어 공화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오바마케어 확대보조금 수혜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공화당 의원들도 보조금 연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돌과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미 정부 섰다운의 쟁점인 어포터블케어 세금보조에 관해 문답식으로 자세히 다뤘다. >>14면으로 계속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주저아 아플린터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마이클리 모기지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내 집 마련·투자·재융자,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저금리 융자·재융자,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믿을 수 있는 모기지 해결사!
모기지 제일 잘 하는 마이크!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의회, 하반기 교사 연수회 성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의회(회장 남일)는 지난 9월 27일 '작은 변화, 큰 배움: AI 시대의 한국학교 교수법' 을 주제로 2025년도 하반기 정기 교사 연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 손연주 교육간사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연수회에는 내수 아한마을, 누리, 뉴잉글랜드, 보스턴장로교회, 보스턴천주교, 보스톤 한국, 푸르피, 보스턴중앙교회, 메인한글학교 등 9개 학교 소속 교사들이 참석해 강의를 듣고 논의를 이어갔다.

남일 회장은 "참석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인식 이사장님과 김재휘 총영사님을 대신해 참석해 주신 지은석 교육영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동포 2세 교육 현장을 향한 주보스턴 총영사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큰 힘을 얻게 된다" 고 전했다.

오인식 이사장은 교사와 학부모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은 다문화 사회 속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 격려했다. 또한 지은석 교육

(전체 기사 읽기)

영사는 "한국학교는 차세대의 정체성과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는 소중한 교육기관이며, 각 지역 한국학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 축사를 대신했다.

협의회 임원 소개 후 이어진 전체 강연에서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 임성혜 교수는 자신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라고 소개하며 "교사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임 교수는 '마음 건강, 뇌 건강' 을 주제로 교사의 정서적 안정과 학생 지도와의 관계를 짚으며 다양한 사례와 예방 방안 등을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분반 강연에서는 홍순주 강사가 이중언어 수업 설계를, 장은아 강사가 기초 한국어 수업 디자인과 Canva 활용법을, 이보람 강사가 실용 교수법을, 이정설 강사가 AI 활용 글쓰기 수업을 각각 강의했다. 현장 중심의 강의들이 이어졌으며, 차세대 교사들이 직접 참여 성장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마



련되어 의미를 더했다.

연수회 후 제출된 참가 후기에 따르면 전체 강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고, 분반 강의 또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분반 강의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강의 후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이정설 협의회 총무는 제시된 의견을 다음 연수회 때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연수회에서 다루기를 희망하는 주제로는 ▲아동심리학

(36%) ▲실습 워크숍(24%) ▲한국 문화 (16%) ▲패널 토론 (8%) ▲PPT 제작(8%) ▲AI 활용법(8%) 순으로 꼽혔다. 이는 협의회 각 학교 교사들이 실습·토론 중심, 현장 적용 사례 공유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협의회 측은 이번 교사 연수회를 계기로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 현장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된 것이며, 이는 동포 2세 교육을 위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의 다음 전체 행사는 오는 10월 18일 참가 신청이 마감되는 '제5회 동해-독도 지명표기 조사활동 공모전' 이다. 학년에 따라 ①그림일기 부문(K-3학년), ②포스터 부문(4-7학년), ③프레젠테이션 부문(8-11학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용 구글 폼: <https://forms.gle/67VmDAbtnafmbGSJ6>)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림탕
Seoul Seorim 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kyu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JUNG KWAN JANG

정관장의 프리미엄을 선물하세요

올 추석은, 정관장과 FULL 하게

행사 기간 : 9/19 - 10/12/2025

Event 1
* 천복류 15% 할인
* 달임액 | 봉밀절편 20%할인

Event 2
* 멤버스 고객 \$99이상 구매 시 사은품 증정 (\$25 상당)

Event 3
* GLPro 구매 고객 3일분 추가 증정

*이 제품은 질병을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균형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음용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구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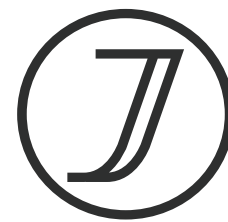
NO.1 WORLD'S NO.1 GINSENG BRAND
125 YEARS OF QUALITY & PURITY
420 QUALITY & SAFETY TESTS

JUNGKWANJANG.US / @KJCUS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하프와 피아노로 세계 최초 기록 세운 김채린, 클래식 새로운 역사 쓴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유매스보스톤(Umass Boston) 공연 예술학과 김채린(Chaerin Kim) 교수가 국제 클래식 무대에서 이색적인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5월 18일 베네수엘라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공연에서 한 무대에서 하프와 피아노 협주곡을 모두 연주하고, 직접 작곡한 「Rendezvous」를 초연하며 세계 최초 기록을 세웠다. 이날 관객들은 여덟 번의 커튼콜을 보내며 기립박수로 환호했다.

그 무대에서 그녀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전악장을 연주했으며, 자신이 작곡한 〈Rendezvous Harp with Orchestra〉를 세계 최초로 공연했다.

유매스보스톤 뉴스에 따르면, 김 교수는 총 10개의 악기를 다룰 수 있지만, 가장 애착을 갖는 악기는 피아노와 하프다. 그는 “양손의 손끝으로 직접 접촉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 감정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악기”라고 설명한다.

대표작 「Rendezvous」는 원래 피아노곡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하프·오케스트라·성악 등 100여 가



지 버전으로 확장됐다. 가사는 한국어로 처음 쓰였으며, 지금은 80개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 음악가들이 연주할 수 있게 됐다.

베네수엘라 공연은 어머니에게 바치는 헌정이기도 했다. 김 교수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음악 애호가로, 어린 시절 기도 중 딸이 하프와 피아노를 모두 연주하는 모습을 환상처럼 보았다고 한다.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5월 기록 이후 그녀는 에스토니아

에서 또 다른 세계 기록을 세웠다. 자신의 하프 협주곡을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직접 지휘까지 동시에 맡은 세계 최초의 하프 연주자가 된 것이다. 김 교수는 이를 “마치 뷔페에서 여러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에 비유했다.

김채린 교수는 2012년부터 유매스에서 피아노와 하프를 가르쳐오고 있다. 또한 그레미 상을 비롯한 국제 대회 심사위원으로서도 활약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시민협회, 9일 주청사서 코리아데이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인시민협회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가 오는 10월 9일 목요일 매사추세츠 주청사 그레이트 홀에서 ‘코리아데이(Korea Day)’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글날을 기념하고 한인 이민사와 문화를 주류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보스톤 지역 정치인과 주정부 관계자, 한인사회 인사들이 함께할 예정

이다. 〈전체 기사 읽기〉

행사에서 한국 전통 음식과 함께 한복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전통 음악과 무용 공연이 펼쳐진다.

시민협회 측은 “코리아데이는 보스톤 한인사회가 주류 사회와 문화를 나누고,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며 “K-팝 팬은 물론 한국 문화를 궁금해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Ch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OCT. 3rd - OCT. 9th,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추석맞이 대세일 H 마트가 드리는 풍성한 가을 추석 CELEBRATE THE FULL MOON HARVEST 세일! 올해 추석은 10월 6일 입니다.

CHICKEN RAMYUN Try this recipe and serve yourself a home-style hug on a plate, with ingredients from H Mart! H 마트 치킨라면 레시피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한 끼를 만들어보세요.

<p>Green Seedless Grape 씨없는 청포도 LB \$2.99</p>	<p>Lago Grape 라고 포도 6LB/BOX \$17.99</p>	<p>Napa Cabbage 배추 BOX \$19.99</p>	<p>Dragon Fruit White Flesh 용과 LB \$2.99</p>	<p>Green Onion 파 BUN FOR \$1.99</p>	<p>Longan 롱간 LB \$2.99</p>	<p>Korean Shine Muscat Grape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 PRODUCT OF KOREA 1.32 LB/PKG \$19.99</p>
<p>Fuyu Persimmon 단감 3LB/PKG \$10.99</p>	<p>Korean Radish 한국 무 BOX \$14.99</p>	<p>Korean Pear 한국산 배 PRODUCT OF KOREA 6-12 CNT/BOX \$29.99</p>	<p>Shanghai Choy 청경채 LB \$1.49</p>	<p>Kyoho Grape 교호 포도 BAG BOX \$19.99 \$44.99</p>	<p>Bushel Spinach 부셸 시금치 BUN \$1.49</p>	<p>Yellow Corn 노란 옥수수 EA FOR \$4.99</p>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U.S.D.A. CHOICE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소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9.99</p>	<p>Fresh Ox Tail 생소꼬리 LB \$15.99</p>
<p>Fresh Sliced Pork CT Butt Steak 생돼지목살 (소금구이용) LB \$7.99</p>	<p>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생돼지갈비 (바베큐용) LB \$3.99</p>
<p>Fresh Chicken Wing 생닭날개 FAMILY PACK/LB \$3.99</p>	<p>U.S.D.A. CHOICE 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 양념 LA 갈비 SLICED/LB \$16.99</p>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Live Lobster 살아있는 랍스터 LB \$9.99</p>	<p>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7.99</p>
<p>Frozen SUHYUP Yellow Croaker 수협 영광 굴비 PRODUCT OF KOREA/LB \$7.99</p>	<p>Headless White Shrimp 흰새우 16-20'S/LB \$7.99</p>
<p>Frozen Pollock Fillet 동태전감 LB \$2.99</p>	<p>Frozen Striped Bass 농어 600-800'S/LB \$5.99</p>

SMART CARD MEMBER ONLY

<p>H MART SMART CARD ONLY NONGSHIM Chapagetti Jjajang Noodles 농심 짜파게티 4.48 OZ X 10 EA/BOX \$11.99</p>	<p>H MART SMART CARD ONLY HAIO Frozen Seasoned Pollack Roe 해오름 명란젓 2.2 LB \$22.99</p>
<p>H MART SMART CARD ONLY DR.CHUNG'S FOOD Vegemil Blackbean Almond & Walnut Soymilk 정식품 베지밀 검은콩 아몬드와 호두 두유 6.42 FL OZ X 24 EA/PKG \$13.99</p>	<p>H MART SMART CARD ONLY DR.CHUNG'S FOOD Vegemil Soymilk B 정식품 베지밀 B 6.42 FL OZ X 24 EA/PKG \$13.99</p>

<p>SEMPIO Soy Sauce 샘표 진간장 S/급 RICH & MELLOW/RICH & DELICATE 57.48 FL OZ \$4.99</p>	<p>SAJO DAERIMSEON Vegetable Seafood Patty 1+1 대림선 야채등뼈 해물완자 1+1 기획세트 10.58 OZ X 2 EA/SET \$4.99</p>	<p>SAJO DAERIMSEON Japchae Seafood Patty 1+1 대림선 잡채 해물완자 1+1 기획세트 10.58 OZ X 2 EA/SET \$4.99</p>	<p>PULMUONE Jjamppong Noodle Soup Kit 풀무원 직화 짬뽕 12.8 OZ \$6.99</p>	<p>PULMUONE Vietnamese Style Pho Noodle Soup 풀무원 베트남 쌀국수 11.2 OZ \$6.99</p>
<p>CHUNG JUNGONE O'Food Beef & Vegetable Dumplings 청정원 소고기만두 1.5 LB \$7.99</p>	<p>FOODCELL Wide Vermicelli Noodles 푸드셀 납작당면 1 LB \$2.99</p>	<p>YOODONG Silkworm Pupa in Sauce 유동 툽배기 번데기탕 SPICY/SOYBEAN PASTE 9.87 OZ \$1.99</p>	<p>SAMPO Canned White/Yellow Peach 삼포 백도/황도 통조림 14.1 OZ \$1.99</p>	<p>ARIZONA FARM Honey Powder 아리조나팜 허니파우더 3 LB \$8.99</p>
<p>HAITAI Ace Cracker 해태 에이스 크래커 12.84 OZ \$3.99</p>	<p>HAITAI Butter Ring Cookie 해태 버터링 쿠키 6.84 OZ \$3.99</p>	<p>TAKEYA Plastic Food Storage Container 일본 플라스틱 밀폐용기 LIGHT BLUE 6.8 FL OZ X 3 PCS/PKG \$3.99 \$3.19</p>	<p>NASSAU M Power Badminton Racket 나소 M파워 컬러믹스 배드민턴 라켓 RED & BLUE \$16.99 \$12.49 2 PCS/SET</p>	<p>EASYANDFREE Steamcook Microwave Steamer 이니앤프리 스팀콕 전자레인지 찜용기 22 FL OZ \$4.49 40.6 FL OZ \$5.99 \$2.99 \$4.49 EA</p>

전통 먹거리 문화의 명가 - **반찬단지** 한국 인기 브랜드인 반찬단지를 H 마트에서 만나보세요!
 품질의 차별성과 기술의 바탕으로 고객의 식탁을 책임지는 반찬단지는 한국 전지역 전통시장 및 단체급식,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에 공급함으로써 맛으로 인정 받았으며, HACCP, ISO22000, FSSC22000 등에서 인증받아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40년 전통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K2B 테라퓨틱스, 정세호 박사 신임 대표이사 선임 발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암 정밀 표적 치료를 위한 세계 최초의 단백질-약물 접합체 (PDC, Protein-Drug Conjugates) 플랫폼을 개발하는 전임상 단계 바이오테크 기업 K2B Therapeutics는 정세호 박사(Ph.D.)를 신임 사장 겸 대표이사(CEO, President & Chief Executive Officer)로 선임했다고 1일 발표했다.

정세호 박사는 대형 제약사, 중견 및 스타트업 바이오텍, 규제기관, 그리고 학계 전반에 걸친 폭넓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약 개발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독보적인 통찰력과 경험을 쌓아왔다.

그는 과거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브(Bristol-Myers Squibb), 밀레니엄(다케다 온콜로지, Millennium-Takeda Oncology), 앨나일람 파마슈티컬스(Alnylam Pharmaceuticals) 등에서 주요 리더십을 수행하며, 종양학과 RNA 치료제 분야의 혁신적 성과에 기여했다. 가장 최근에는 엘레바 테라퓨틱스(Elevar Therapeutics)의 CEO로 재직하며, 희귀암 분야의 신약 후보물질들을 후기 임상개발 및 규제기관과의 심사 과정까지 이끌었다.

정 박사는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SUNY Buffalo) 약학대학에서 약제학 학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및 SUNY Buffalo 약학대학 겸임 부교수를 역임했다. 또한 American Association of Pharmaceutical Scientists Journal, Drug Metabolism and Pharmacokinetics, Archives of

〈전체 기사 읽기〉



Pharmacal Research, Journal of Pharmaceutical Investigation 등 주요 학술 저널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계 발전에도 기여해왔다.

K2B 공동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김종성 대표는 “K2B의 중요한 전환기에 정세호 박사를 CEO로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며, “K2B가 POC(Proof-of-Concept) 발견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치료제 개발 단계로 도약하는 이 시점에서, 정 박사의 깊은 전문성과 글로벌 리더십은 암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제를 제공하려는 우리의 미션을 추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자산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정세호 박사의 합류는 K2B Therapeutics가 혁신적인 PDC 플랫폼 개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투자자와 글로벌 제약사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K2B 테라퓨틱스 측은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매사추세츠 베벌리 반도체 기업 액셀리스, 44억 달러 규모 비코와 합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베벌리에 본사를 둔 반도체 장비업체 액셀리스 테크놀로지스(Axcelis Technologies, 나스닥: ACLS)가 뉴욕 플레인뷰에 본사를 둔 비코 인스트루먼트(Veeco Instruments, 나스닥: VECO)와 합병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거래는 전액 주식 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며, 합병 후 기업가치는 약 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액셀리스와 비코는 합병을 통해 미국 내 웨이퍼 제조 장비 업체 매출 순위 4위 기업으로 도약하게 된다. 합병이 완료되면 액셀리스 주주가 약 58%, 비코 주주가 나머지 42%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거래는 2026년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새롭게 합병한 기업의 이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베벌리에 본사를 유지한다.

액셀리스는 인텔, 삼성 등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에 핵심 장비인 이온 주입기(ion implanter)를 공급하고 있다. 이 장비는 반도체 칩 제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정을 수행하며, 2024년 액셀리스 전체 매출 10억 2천만 달러 가운데 98.3%를 차지했다. 같은 해 순이익은 2억 100만 달러였으며, 전 세계 직원은 1,700명, 이중 1,000명이 매사추세츠에서 근무하고

〈전체 기사 읽기〉

있다. 주요 생산 시설은 베벌리와 한국에 있다.

액셀리스는 베벌리에서 41만7천 제곱 피트 규모의 본사 건물을 임대해 제조·R&D·경영 활동을 운영하며, 인근 23에이커의 미개발 부지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1978년 사업을 시작했으며, 1995년 현재의 법인으로 전환됐다.

비코 인스트루먼트는 웨이퍼에 박막을 증착시키는 에피택시(Epitaxy)와 화합물 반도체 공정 장비에서 강점을 가진 회사로 매사추세츠 월담에 R&D 시설을 두고 있으며, 2024년 매출 7억 1,700만 달러, 순이익 7,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내 직원은 881명이다.

러셀 로우 액셀리스 CEO는 성명에서 “비코의 혁신 역사를 오래 전부터 존경해왔다” 며 “비코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 그들의 탁월한 인재, 문화, 혁신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두 회사가 합쳐지면 거대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액셀리스·비코는 첨단 반도체 제조 전 과정에서 더 넓은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hsb@bostonkorea.com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 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거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들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혹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위트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The MA Problem Gambling
Helpline
800-327-5050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계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lshs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송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rimso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hin@bostonpremierrealty.com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폴리진
978.454.2043
lshpark@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파
617.447.0551
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유
617.780.7833
peter.yu@bostonpremierrealty.com



티나 히
978.866.3248
tinahe@bostonpremierrealty.com



여현유
401.535.3387
yehyun11@icloud.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hyu@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강수준
617.838.8973
kangsojun@icloud.com



파사 송
213.563.0997
parksun@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히
413.507.1402
mikihe@bostonpremierrealty.com



선재해
617.913.3588
sunjaeh@bostonpremierrealty.com



최준원
617.877.9387
heonjun@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ayoungkim@bostonpremierrealty.com



곽복숙
781.898.1214
kwok@sbcglobal.net



지한 김
617.510.1182
jihankim@bostonpremierrealty.com



이곤김
617.843.8723
egonkim@bostonpremierrealty.com



헤온 김
604.611.0182
heon@bostonpremierrealty.com



Tommy Woolfolk
617.274.5610
to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982
nancywang03@icloud.com



Shirley Zhao
857.22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Mian Yu
617.933.2713
mian.yu@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7.8978
xian@icloud.com



Lu Jang
248.418.0117
lu@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638.960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23.103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508.873.8076
michael@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a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3.28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38.828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반문희 박
291.448.8589
hanna@bostonpremierrealty.com



재이그 김
781.956.0409
reagr@bostonpremierrealty.com



이성진
857.280.0434
aaron@bostonpremierrealty.com



Nini Bolanger
413.237.1888
nini11@icloud.com



헨리조, "중국, 인도계는 99% 중국 인도인, 내 관중은 98%가 백인"

▶▶1면에 이어서

디 아머리에서 개최된 시민협회(KACL) 코미디 나잇은 시민참여 인턴 장학금 모금을 위한 무대였다. 한 참가자는 코미디나잇이 이렇게 성공적일 줄 몰랐다고 할 정도로 매진을 기록한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는 브루클라인 출신 한국계 코미디언 헬렌 홍(Helen Hong)도 무대에 올랐으며, 할리우드에 진출한 방송인 미키라라 수니 캠벨도 참여했다.

헨리 조는 시민협회 행사까지 끝난 후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무대에 다시 올라 관객들과 악수와 환담을 나누고 함께 사진 포즈를 취했다. 자신의 쇼 시간에만 프로가 아니었다. 쇼가 끝난 후에도 찾아 준 관객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프로페셔널의 자세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행사장 지하로 자리를 옮겨 헨리조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가 보스턴에서 한인관중을 대상으로 코미디쇼를 진행하게 된 과정이 가장 궁금했다.

헨리 조는 시민협회의 린다 챔피언 회장이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코미디쇼를 개최하고 싶다고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그의 에이전트는 당초 부정적이었다. 보스턴 시민협회의 행사가 너무 작다고 생각했으며 청중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헨리 조는 특정 장소에서만 공연한다는 점도 고려해 공연에 반대했다.

린다 챔피언 시민협회 회장은 "KACL이 사상 처음으로 한인 코미디나잇을 계획했을 때 한인 최초의 스탠드업 코미디언인 헨리 조를 반드시 초청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에이전트에 접촉했고 약간의 협상 끝에 출연에 동의했다" 고 밝혔다.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코미디언은 2020세상을 떠난 고자니 윤이었지만 현역 코미디언 중에서는 최초이다.

헨리 조는 "이번 공연에 온 유일한 이유는 한국계 커뮤니티를 위한 행사였기 때문" 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노동절에서 땡스기빙까지 모두 스케줄이 있으며 지난

주말이 유일하게 쉬는 주간이었으나 이를 포기하고 보스턴에 온 것이었다. 이 특별 공연에 출연하기 위해 상당한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한 것이다.

헨리 조는 "만약 이 행사가 다른 어떤 단체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단체의 예산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오지 않았을 것" 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에도 헨리조는 한인사회와 많은 단절을 느끼고 있었다. 다른 소수민족 코미디언은 모두 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데 반해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흑인 코미디언은 관객의 99%가 자신의 출신 인종의 관중들인데 자신의 관객은 98%가 백인" 이라고 털어놓았다. 그의 말에는 서운함이 깊게 베어 있었다.

그는 미국 연예계에서 여러 최초 기록을 세운 선구자였다. 그는 미국 투나잇 쇼에 출연한 첫번째 한국계 미국인, 시트콤 디자인 워먼(Designing Women)에 출연한 첫번째 한국계, 프라에디나잇비디오를 2년간 진행한 첫번째 한국계 미국인이었다. 더구나 미국 컨트리음악계에 가장 권위있는 그랜드 올 오프리(Grand Ole Opry)의 유일한 아시안 멤버다.

선구자의 길은 항상 척박하다. 이러한 업적에도 한인들은 그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다. 40년 전 출발 당시 금기시되어 있던 코미디언을 선택한 그에게 실망감을 표출하기에 바빴다. 일부 친척들, 특히 그의 고모들은 그와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 한인들이 그의 코미디 무대를 찾지 않았던 것도 상처가 됐다. 테네시 녹스빌에서 자랄 때 유일한 아시안이었던 그는 백인사회에 완전히 동화됐다. 일부는 그를 '바나나' 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보스턴의 한인사회에서 들어온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한인임을 늘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박사학위가 두개였던 과학자 헨리 조의 아버지는 좋은



머리를 코미디에 쓴다며 "남비" 라고 당초 반대하셨지만 이후 아들의 코미디 여정을 열렬히 지지했다.

헨리 조는 "한인사회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곳에 참여하겠다" 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일부 한인사회 특히 헨리 조의 친구였던 '코리안 맨' 의 편집장은 한번도 헨리 조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인사회, 한미우호협회는 2020년 헨리 조에게 '뉴 어메리칸 히어로 어워즈' 를 수여했다. "가족을 주제로 한 건전한 주제의 코미디로 아시안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전국 커뮤니티와 단체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펴왔다" 는 것이 선정 이유였다. 이제는 한인사회도 미국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의 공헌과 업적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때가 된 것이다.

테네시대학에 다니던 대학시절 코미디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계기로 바로 대형 코미디 클럽사에 스카우트 된 헨리 조는 대학을 중퇴하고 코미디언의 길을 걷게 됐다. 얼마되지 않아 그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됐다.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그는 노력이라고 답했다. "성공하기 위해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어디든 가능한 모든 곳에서 쇼를 진행했다. 잘되는 것은 무대에서는 일이라고 생각했

기에 어떤 무대이든 그곳에 섰다" 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조크를 쓰고 다듬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신이 주신 재능" 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특히 성적인 농담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깔끔한 유머를 전하는 코미디언으로 유명하다. 패밀리서치 블로그에 따르면 헨리조는 "그만의 독특한 가족 유산을 바탕으로 코미디 무대를 준비한다. 그는 또한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 생활에서도 코미디 아이디어를 얻는다. 가족 중심의 유머와 개인적인 이야기가 주는 독특한 감성으로 그는 미국 전역의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고 설명했다.

아내 에이미 조와의 사이에 세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아이들이 자랄 때 늘 아이들과 함께한 헌신적인 아버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보스턴의 관객들에 대해 묻자 헨리 조는 "좋았다" 라고만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럼에도 서머빌의 아츠 앤드 아머리를 가득 메운 한인 관객들의 환호는 그에게 색다른 '보스턴 경험' 이었음이 틀림없다. 헨리 조에게는 98% 한국 관객을 만나는 자리였고, 한인들은 코미디의 선구자인 스타 헨리 조를 만나는 특별한 자리였다. 의미있는 장학금도 모였다. 코미디 나잇을 결코 웃어 넘겨서는 안되는 이유다.

editor@bostonkorea.com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OUR LOWEST PRICE!

OCT. 2ND - OCT. 9TH, 2025



Pulmuone

통모짜 감자 핫도그
Crispy Potato Corn Dogs

\$6.99 ← ~~REG. \$13.99~~
LIMIT 4 PKG
19 OZ (6 EA/PKG)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보스톤권역 주택시장, 여전히 침체 속 가격 상승세...콘도는 하락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준비은행(Fed)이 최근 기준금리를 0.25퍼센트포인트 인하하면서 그간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이 다시 지지개를 걸 것이라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모기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그레이터 보스톤의 거래 회복세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보스톤 동부 6개 타운을 대상으로 통계를 발표하는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중개인연합(GBA)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보스톤권역 단독주택 거래량은 1,07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부진했던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스톤 49번 도로 안팎 139개 도시와 타운의 통계를 추적하는 워렌 그룹(Warren Group) 보고서에서도 올해 들어 단독주택 누적 거래량이 1만 3,963건으로 지난해보다 2.9퍼센트 늘었지만, 뚜렷한 회복세라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GBAR이 발표한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 주택가격은 소폭 조정을 받았다. 6월에 사상 최고치였던 100만 달러를 찍은 뒤 8월 중간 가격은 93만 5,000달러로 내려왔다. 다만 전년 동월보다는 여전히 상승세다. 워렌

그룹 자료에 따르면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 단독주택 중간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3.1퍼센트 오른 82만 달러였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중간 매매가는 81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4.5퍼센트 올랐다.

GBAR 회장이자 프리미어리얼티 그룹 대표인 마크 트리글리오니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단독주택의 중간 거래가격이 최초 매물가보다 낮게 형성됐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금리 인하 소식은 매수 심리를 자극해 시장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레이터보스톤 콘도 시장은 단독주택과 달리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8월 콘도 거래량은 1,36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2.2퍼센트 증가했지만, 중간 판매가는 62만 달러에서 60만 달러로 3.2퍼센트 떨어졌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거래량은 9,603건으로 전년보다 2.7퍼센트 늘었지만, 중간 판매가는 62만 6,000달러로 0.6퍼센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그레이터 보스톤 주택시장이 장기간 침체를 이어온 원인으로 높은 가격과 모기지 금리 부담을 꼽는다. 실제로 2021년 8월 중간 가격은 78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에는 93만 5,000달러로 4년 만

에 20퍼센트가 가까이 올랐다. 금리 하락이 월 상환금을 크게 줄이지 못하는 것도 부담이다. 예를 들어 중간 가격인 93만 5,000달러 주택을 6.26퍼센트 금리로 30년 고정 모기지를 받을 경우 월 상환액은 재산세와 보험료를 제외하고도 4,610달러에 달한다. 금리가 0.5퍼센트포인트 내려가도 월 상환액은 241달러 줄어드는데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변화 조짐이 보인다. 8월 보스톤권역 매물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퍼센트 늘어나면서, 매도인들이 다시 시장에 나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워렌 그룹의 캐시디 노튼 부대표는 “현재 시장에 나선 구매자들은 연초보다 낮은 가격과 가격 인하 사례를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 하락이 일부 매수자와 매도자들의 시장 진입을 자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스톤 부동산 중개인 협회(GBAR)와 부동산 분석업체 워렌 그룹(Warren Group)은 그레이터보스톤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매매가를 추적하고 있지만 대상 커뮤니티는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워렌 그룹은 139개 도시와 타운을 포함해 ‘그레이터 보스톤 주택시장’을 집계하는 반면, GBAR은 동부 매사추세츠 내 6개 커뮤니티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같은 ‘그레이터 보스톤’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수치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보스톤 코리아는 그레이터보스톤 지역의 중간가를 발표할 경우 주로 GBAR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표해 왔다.



매사추세츠 재산세 최고액 지역은 웨스턴·브루클라인·링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다. 소유하는데도 막대한 재산세가 뒤따른다.

비영리단체 택스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에 따르면 매사추세츠는 소득 대비 주거용 재산세 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 기준으로 전국 18위를 기록했다.

보스톤비즈니스저널에 따르면, 중부와 서부 매사추세츠의 여러 도시가 높은 세율을 보이지만, 실제로 가장 큰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곳은 동부 매사추세츠의 고급주택 밀집 지역이다. 2025 회계연도에 웨스턴, 브루클라인, 링컨 등 세 개 타운의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평균 2만 달러가 넘는 재산세를 납부했다.

웨스턴과 브루클라인의 주택 중위가격은 200만 달러를 웃돌고, 링컨도 160만 달러에 달한다. 웨스턴은 이미 2019년에 평균 재산세 2만 달러를 처음 돌파한 바 있다. 2025 회계연도 기준, 평균 재산세 고지서가 1만 달러를 넘는 지역은 총 57개 시·타운으로 전체의 16%에 이른다.

주 전체 평균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0년간 43% 상승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약 35%를 웃도는 수준이다.

보스톤의 세수 딜레마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시는 그동안 주거용 부동산 세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해 도심 대형 오피스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원격·하이브리드 근무 확산으로 사무실 수요가 급감하고 공실률이 치솟으면서 상업용 건물 가치가 빠르게 하락해 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상업용 부동산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려 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는 이미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세율 전환은 주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아직 동의를 얻지 못했다.

현재 보스톤 주택 소유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덕분에 평균 재산세 고지서가 6,792달러로 주 평균 7,730달러보다 낮다.

하지만 보스톤정책연구소(Boston Policy Institute)는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세수 급감 이후 시 재정에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보스톤 시의 예산 적자가 올해 1억3천5백만 달러에서 2029 회계연도에는 5억5천만 달러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617.742.7707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유에스뉴스 선정 미국 최고대학, 올해도 뉴잉글랜드 대학들 상위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유에스뉴스(US News & World Report)가 23일 발표한 미국 최고대학 순위에서 따르면, MIT는 전체 2위, 하버드는 3위를 차지하는 등 뉴잉글랜드 내 대학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프린스턴은 올해도 하버드와 MIT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예일대와 스탠포드가 공동 4위에 올랐다. 로드아일랜드의 브라운대와 뉴햄프셔의 다트머스 칼리지는 공동 13위를 차지했다.

리버럴 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 부문에서는 매사추세츠 윌리엄스타운 소재 윌리엄스 칼리지가 1위를, 앰허스트 칼리지가 2위를 기록했다. 메인주의 보우도인 칼리지는 미 공군사관학교와 함께 공동 5위에 올랐으며, 매사추세츠 웰슬리 칼리지는 캘리포니아의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와 포모나 칼리지와 함께 공동 7위를 차지했다. 또한 미 들베리 칼리지(버몬트), 스미스 칼리지(매사추세츠), 웨슬리언 대학교(코네티컷)는 모두 공동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2026 최고 종합대학 순위

1. Princeton University (NJ)

2.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A)
3. Harvard University (MA)
4. (tied) Stanford University (CA)
4. (tied) Yale University (CT)
6. University of Chicago (IL)
7. (tied) Duke University (NC)
7. (tied) Johns Hopkins University (MD)
7. (tied) Northwestern University (IL)
7. (tied) University of Pennsylvania (PA)
11.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
12. Cornell University (NY)
13. (tied) Brown University (RI)
13. (tied) Dartmouth College (NH)
15. (tied) Columbia University (NY)
15. (tied)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A)
17. (tied) Rice University (TX)
17. (tied)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A)
17. (tied) Vanderbilt University (TN)
20. (tied) Carnegie Mellon University (PA)
20. (tied)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
20. (tied) University of Notre Dame

<전체 기사 읽기>

20. (tied)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MO)
- 2026 최고 리버럴아츠 대학 순위
1. Williams College (MA)
2. Amherst College (MA)
3. United States Naval Academy (MD)
4. Swarthmore College (PA)
5. (tied) Bowdoin College (ME)
5. (tied) United States Air Force Academy (CO)
7. (tied) Claremont McKenna College (CA)
7. (tied) Pomona College (CA)
7. (tied) Wellesley College (MA)
10. (tied) Carleton College (MN)
10. (tied) Harvey Mudd College (CA)
10. (tied)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at West Point (NY)
13. (tied) Barnard College (NY)
13. (tied) Davidson College (NC)
13. (tied) Grinnell College (IA)
13. (tied) Hamilton College (NY)
13. (tied) Middlebury College (VT)
13. (tied) Smith College (MA)
13. (tied) Vassar College (NY)
13. (tied) Wesleyan University (CT)



창업 발표회를 하고 있는 뱁슨 칼리지 학생들 (2018년 보스톤코리아 자료사진)

뱁슨 칼리지, 월스트리트저널 대학 평가서 아이비리그 제치고 전국 2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웰슬리에 위치한 뱁슨 칼리지 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발표한 2026년 대학 순위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소규모 경영·창업 특화 대학인 뱁슨은 전국 582개 대학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6년부터 매년 순위를 발표해 온 월스트리트저널은 칼리지 펄스(College Pulse), 스타티스타(Statista)와 협업해 졸업 후 급여 효과(salary impact), 진로 준비도(career preparation) 등 지표를 종합해 점수를 산정했다. 뱁슨은 100점 만점에 90.3점을 기록했다.

뱁슨은 최근 몇 년 동안 눈에 띄는 상승세를 이어왔다. 2022년 126위였던 뱁슨은 2023년 전국 10위로 뛰어올랐고, 2024년과 2025년에는 2위에 오르며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제쳤다.

올해 뱁슨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한 대학은 스탠포드대학교뿐이다. 이어 예일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가 뒤를 이었고 하버드대학교가 5위에 올랐다.

스피넬리 총장은 “스탠포드와 예일의 막대한 기부금을 보면 자원 면에서 비대칭적인 세계라

<전체 기사 읽기>

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고 강조했다.

2026년 WSJ 선정 미국 상위 20개 대학

1. Stanford University
 2. Babson College
 3. Yale University
 4. Princeton University
 5. Harvard University
 6. Claremont McKenna College
 7.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8. Columbia University
 9. University of Pennsylvania
 10. Davidson College
 11.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12. Bentley University
 13.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14.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15. Harvey Mudd College
 16.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Main Campus
 17. San Jose State University
 18. Cornell University
 19. Loyola University Maryland
 20. University of Notre Dame
- bostonkorean@hotmail.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 MA, 15777



저소득층·세입자에 혜택 확대한 매스세이브, 수요 폭증과 예산 삭감에 허덕

저소득층 지원보다는 상업용 지원으로 방향 선회로 만회 전략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스세이브(Mass Save)는 올해 초부터 주택 소유자들에게 집중됐던 혜택을 저소득 가구와 아파트, 다세대 주택의 렌트 세입자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에 따라 히트펌프 설치, 단열공사, 창호 교체 등 다양한 지원을 집을 소유하지 않은 주민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소외돼 왔던 계층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예상보다 수요가 폭증하면서 책정된 예산이 빠르게 바닥 드러났고, 동시에 높은 전기요금에 대한 주민 반발로 주공공유틸리티부(DPU)가 매스세이브 예산을 5억 달러나 삭감하면서 지원 확대 계획은 제동이 걸렸다.

매스세이브의 혜택 확대 정책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였다. 주 감사원실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거주 지역 주민들은 매스세이브 재원을 위해 부과되는 전기요금 할증금을 평균보다 24% 더 내고 있었지만 정작 혜택은 거의 받지 못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예산 압박으로 인해 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이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올봄부터 매스세이브는 히트펌프 인센티브와 임차인 지원 프로그램을 줄였고, 여름에는 일부 창문 교체 사업을 연기하거나 제한했다. 최근 내부 메모에 따르면, 저소득층보다는 소규모 사업체와 다가구 건물 소유자 지원에 더 많은 자원이 배정되는 상황까지 나타났다.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첼시의 환경단체 그린루츠는 “공정성 면

<전체 기사 읽기>

에서 매스세이브의 성적표는 여전히 불량하다”고 지적했고, 물도시 주택개발 담당자는 “저소득층이 더 부유한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떠받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정에너지 단체들은 “효율화 프로그램은 1달러 투자당 3.40달러의 편익을 돌려준다”며, 가스·전기요금 납부자가 아닌 새로운 자원 마련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매스세이브는 단순한 요금 절감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사추세츠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산 삭감과 높은 요금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겹치면서,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세입자 지원이 다시 축소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뉴햄프셔, 결핵 신규 환자 2명 발생... 공공장소 노출 가능성 경고

NH 보건부, 맨체스터와 내슈아에서 신규 결핵환자 2명 발생 확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전체 기사 읽기>

기자 = 뉴햄프셔주 보건 당국이 맨체스터와 내슈아에서 새로운 결핵 환자 2명을 확인하고, 일부 주민이 감염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1일 밝혔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지난 3월 맨체스터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지역 내에서 확인된 두 번째와 세 번째 활동성 결핵 사례다.

뉴햄프셔 보건복지부(DHHS)는 맨체스터·내슈아 시 보건당국 및 지역 단체와 협력해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직접 검사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자들이 다수의 공공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당국은 노출자를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 당국은 다음의 장소를 해당 기간동안 자주 방문했던 주민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맨체스터 1269 카페 (456 Union St.) : 2025년 1월 1일~3월 1일

맨체스터 'Loads of Love' 세탁소 행사 (1231 Elm St.) : 2025년 1월 1일~7월 17일, 매주 월요일·목요일 오후 10시~새벽 1시

힐스버러 카운티 교정시설 (445 Willow St.) : 2025년 4월 16~25일, 5월 9일~8월 15일

주 역학부 부책임자 엘리자베스 A. 탭버 박사는 “결핵에 노출된 사람이 실제로 병에 걸릴 위험은 낮지만, 해당 기간에 위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는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결핵은 주로 폐를 감염시키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될 수 있다. 초기 증상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몇 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 야간 발한, 발열 등이 대표적이다.

뉴햄프셔 보건 당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12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집단 거주지, 노숙인 쉼터, 교정시설 등에서 감염 위험이 높다고 질병통제 예방센터(CDC)는 설명한다.

당국은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주민들에게 즉시 603-271-4496으로 연락해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하느님에 대하여
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튼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톤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ACA건강보험 확대 보조금, 왜 미 정부 섀다운 갈등의 핵심인가

▶▶1면에 이어서

ACA 확대 보조금(enhanced ACA subsidies)이란?

ACA 보험 보조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세액 공제로, 가입자가 가계 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팬데믹 당시, 이 보조금의 소득 상한선(연방 빈곤선(FPL)의 400%, 4인가족 기준 \$128,600 이하)을 폐지하고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어가면 보조금을 받도록 했으며,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비율도 낮추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확대했다.

이 조치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2025년 말까지 연장됐으나, 내년부터는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다.

보조금 수혜자와 정부가 감당하는 비용
카이저패밀리리더단(KFF) 조사에 따르면, 현재 ACA 보험 가입자는 약 2,430만 명이고, 이 중 2,240만 명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확대를 2034년까지 연장할 경우 약 3,5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만약 보조금이 만료된다면?

보조금 자체는 남지만 지원 수준이 낮아진다. 수백만 명의 가입자가 연 평균 1천달러 이상 보험료 폭등에 직면할 수 있다. KFF는 평균 본인 부담 보험료가 올해 888달러에서 내년 1,904달러로 두 배 이상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BO는 보조금 확대가 끝날 경우 약 42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 의료에 1조 달러 이상 요구한다는 트럼프 주장이 맞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 의료에 1조 달러 이상을 쓰려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주당은 공화당의 OBBBA법 세제 개혁으로 삭감된 이민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출을 되돌리려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ACA 보조금과 메디케이드 확대가 포함된다. 두가지 모두 합하면 민주당의 총 요구액은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이다. 그러나 이 비용은 불법이민자를 위한 비용은 아니다.

불법 체류자는 ACA 보조금이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연방법상 불법 체류자는 ACA 마켓플레이스에 가입할 수 없다.

올해 7월 트럼프가 서명한 새로운 공화당 세법은, 난민·망명신청자·일부 비자 소지자 등 '합법적 체류자'의 ACA 보조금 자격까지 박탈했다. 민주당은 이를 원상 복구하려 하고 있다. CBO는 이 제한으로 향후 10년간 약 1,310억 달러의 연방 지출이 줄고, 약 140만 명의 합법적 체류 이민자가 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메디케이드 대상이 아니지만, 응급 상황에 한해 연방정부가 병원 치료비를 일부 보전해준다. 공화당 세법은 이 응급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지원 비율을 낮춰 2034년까지 약 280억 달러를 절감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조치도 되돌리려 하기에 트럼프 대통령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 매사추세츠 등 일부 주는 자체 예산으로 불법 체류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공화당 의원들의 이에 대한 시각은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자체와 2021년 도입된 확대 보조금 모두에 반대해왔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자 비용 낭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ACA 보조금은 조지아, 알래스카, 텍사스 등 공화당 성향이 강하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에서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공화당은 내년 상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갑작스러운 보험료 폭등을 겪을 경우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ACA 가입자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곳은 텍사스, 미시시피, 테네시 등 공화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연장 가능성은?

의회에서는 확대 보조금 연장이 사실상 정부 자금 협상의 핵심으로 꼽힌다. 현재 논의되는 안은 1년 연장이지만, 공화당은 소득 상한선 도입이나 부정 수급 방지 조항 강화 같은 조건을 붙이려 한다.

존 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는 협상 의지를 밝혔으나, 명확히 연장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은 2년 연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하원 내 일부 의원은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길 원하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해당 정책에 "우려가 있다"는 좀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내과 / 비만 전문의 이용현

Charles River Medical Associates - Obesity Clinic
61 Lincoln Street, Suite 301, Framingham, MA 01702
508-820-8332

비타민 C 메가도스, 과연 필요한가? 부작용은?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과연 고용량 비타민 C가 필요한지,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비타민 C의 일반 권장 용량과 이득

하루 비타민 C 일반 권장량은 성인 남성 90 mg, 여성 75 mg입니다.

이 정도만 충족해도 콜라겐 합성, 철분 흡수 개선, 상처 회복, 면역 기능 유지에 충분합니다.

부족하면 괴혈병 같은 결핍 증상이 나타나지만, 권장량만 채워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연구 근거와 USPSTF의 입장

관찰 연구에서는 비타민 C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암, 사망률이 낮다는 경향이 보이지만, 더 높은 수준의 연구인 무작위 임상시험에서는 보충제를 통한 예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는 정기적인

비타민 C 복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3. 메가도스란 무엇인가?

메가도스(Megadose)는 권장량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고용량 비타민 섭취를 말합니다.

즉, 1000 mg ~ 3000 mg 이상의 비타민 C를 매일 복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메가도스입니다.

일부에서는 "항산화 효과" "면역력 강화" "감기 예방" 등을 주장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매우 제한적이고 오히려 부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4. 어느 정도 용량이면 충분한가?

비타민 C는 혈중 농도가 100~200 mg/day에서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합니다.

400 mg 이상을 섭취해도 체내 저장량은 더 늘어나지 않고 초과분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때문에 그 이상 복용한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5. 가능한 부작용

비타민 C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영양소이지만, 지속적인 고용량

섭취(>1000 mg/day) 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보고됩니다.

- 위장장애 (복부팽만, 설사, 복통)
- 대변잠혈검사 등 일부 검사 결과에 간섭
- 신장결석 위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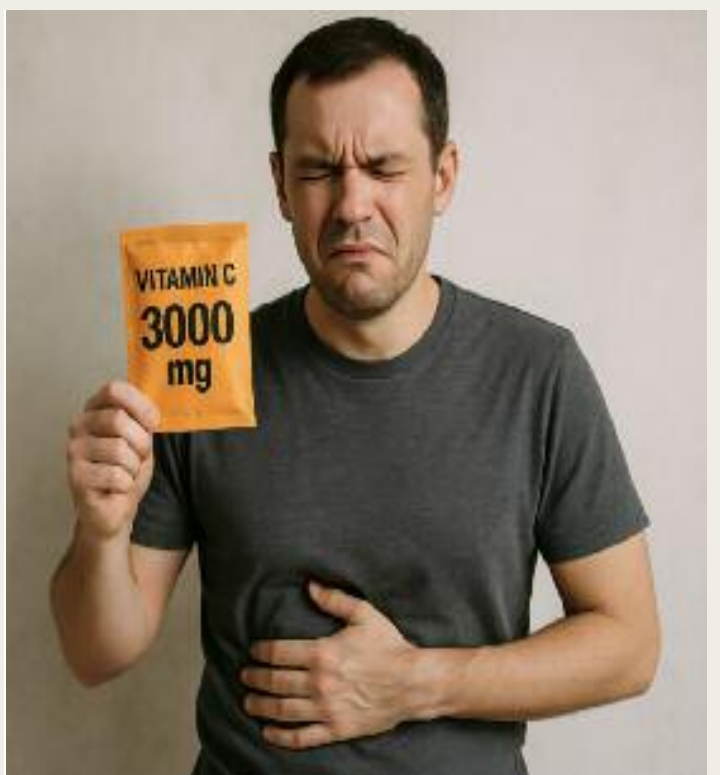
6. 고용량 비타민 C와 신장결석: 정확한 데이터

가장 큰 우려는 신장결석(옥살산칼슘 결석) 위험입니다.

-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를 하루 1000 mg 이상 섭취한 남성은 신장결석 발생 위험이 43% 증가했습니다. 반면, 여성에서는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대사 연구에서 하루 2000 mg 복용 시 요중 옥살산 배설량이 31~39% 증가했으며, **참가자의 약 40%**에서는 결석 형성 위험 지수(Tiselius Index)가 상승했습니다.

즉, 고용량 비타민 C 복용은 특히 남성에서 신장결석 위험을 유의하게 높인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수치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남성에서 신장결석 위험이 최대 40% 이상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고용량 복용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비타민 C는 권장량(100~200 mg/일)만 충족해도 충분합니다. 메가도스는 추가적인 이득이 없고, 부작용 위험만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서 신장결석 위

험이 최대 40% 이상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고용량 복용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과일·채소 섭취)으로 권장량을 충족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스톤의 가을 즐기기 - 단풍 구경 가이드

보스톤 단풍 로드: 도심 속 낙엽 감성과 뉴잉글랜드의 색채 여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가을이 오면 뉴잉글랜드의 풍경은 순식간에 변화한다. 보스톤도 예외는 아니다. 붉고 주황빛, 노란빛이 도시 곳곳의 나무와 거리를 물들이면, 그야말로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계절이 펼쳐진다.

단풍 절정 시기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지만, 보스톤 지역은 보통 10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가 가장 화려하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도심 쪽은 해안 영향과 도시 열섬 효과 때문에 내륙보다 다소 늦게 물드는 경향이 있으니, 계획을 짜기 전에 기상과 단풍 지도를 체크하면 더욱 알찬 여행이 된다.

보스톤 시내 구석구석의 단풍 산책로, 강가 뷰포인트, 대학 캠퍼스, 숲길과 근교 자연 명소 다양하게 추천한다. 각 장소별 분위기와 특징을 함께 담아두었으니, 계절이 무르익을 때 차근차근 걸으며 즐겨보자.

보스톤 퍼블릭 가든&보스톤 커먼 (Boston Public Garden & Boston Common)

단풍을 즐기기 가장 좋은 장소는 단연 보스톤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한 Public Garden과 Boston Common이다. 도심 중심부에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주변에 카페에 둘러싸여 한잔 들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이 두 공원은 서로 맞닿아 있어 한 번에 둘러보기 좋다. 또한 두 공원의 다른 매력의 단풍 풍경을 느껴볼 수 있다. Public Garden의 작은 연못과 나무 다리, 그리고 가을빛으로 물든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반사 풍경은 그림 같은 장면을 선사한다. Boston Common은 더 넓고 다양한 수종의 숲을 품고 있어 한 바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공원 경계는 Charles

〈전체 기사 읽기〉

St, Beacon St, Arlington St, Boylston St로 둘러싸여 있다.

Boston public garden:
4 Charles Street, Boston, MA 02116
<https://www.boston.gov/parks/public-garden>

Boston Common: 139 Tremont Street, Boston, MA 02111
<https://www.boston.gov/parks/boston-common>

찰스 리버 에스플라네이드 (Charles River Esplanade)

찰스강을 따라 이어진 Esplanade는 가을철 보스톤에서 가장 낭만적인 산책 코스 중 하나다. 강 양쪽으로 물드는 단풍과 함께 도시 스카이라인이 배경이 되어 독특한 풍경을 보여준다. 물 위에 반사된 붉고 노란 잎은 사진 찍기에도 좋으며, 일몰 무렵 벤치에 앉아 강바람을 느끼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접근은 Beacon Hill이나 Back Bay에서도 보로 가능하며, 지하철 Charles/MGH 역과도 가깝다.

웹사이트: <https://esplanade.org/>
아널드 아보리텀(Arnold Arboretum)

보스톤 자메이카 플레인 지역에 자리한 아널드 아보리텀은 하버드 대학교가 관리하는 수목원으로, 가을이면 다양한 나무들이 한꺼번에 색을 바꿔 웅장한 단풍 파노라마를 완성한다. 잘 정돈된 산책로와 언덕길이 있어 걷는 내내 풍경이 달라지고, 비교적 덜 붐비는 분위기 덕분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주소: 125 Arborway, Boston, MA 02130



웹사이트: <https://arboretum.harvard.edu/>
비컨 힐&커먼웰스 애비뉴 몰(Beacon Hill & Commonwealth Avenue Mall)

붉은 벽돌 건물이 즐비한 비컨힐은 좁은 골목길과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 가로수가 어우러져, 가을이 되면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을 만들어낸다. 이와 이어지는 백베이 지역의 Commonwealth Avenue Mall은 양쪽으로 늘어선 나무터널이 황금빛으로 빛나며 긴 산책을 즐기기에 완벽하다. 특히 낙엽이 깔린 길 위에서 걷는 순간은 보스톤 가을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경험이다.

주소: 484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116

웹사이트: <https://friendsofthepublic-garden.org/our-parks/the-mall/>

마운트 오번 공동묘지 (Mount Auburn Cemetery)

보스톤 인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Mount Auburn Cemetery는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정원처럼 설계된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다양한 수종의 나무가 고요한 묘역 사이를 수놓아 독특한 가을 분위기를 선사한다. 혼잡하지 않고 사색적인 산책을 원한다면 이곳만큼 좋은 곳은 없다.

주소: 580 Mount Auburn St, Cambridge, MA

웹사이트: <https://mountauburn.org/>

bostonkorean@hotmail.com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애프터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CHOISIGNS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초이스 간판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윤영호 목사님의 '특별 기자상' 축하드리며...

지난 9월 26일(금)-9월 28일(주일)까지 오�클랜드 가든 소재 '하크네시아 교회(전 광성 목사 시무)에서 "새로운 세계 선교의 흐름"이라는 주제 아래 (제1회 뉴욕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다. 강사진들은 송용필 목사, 장요나 선교사, 박준열 목사, 문선희 선교사가 3일동안 강의의 맡았다. 명예대회장(이용걸 목사), 명예 대회장(김재열 목사), 명예 대회장(류응렬 목사) 그리고 이번 (제 1회 뉴욕 세계 선교대회)의 대회장 회장(이준성 목사), 부대회장 수석 부회장(허윤준 목사), 준비위원장(전광성 목사), 준비위원장(김성은 목사), 준비위원장(이진아 목사), 준비위원장(김희숙 목사) 임원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귀한 선교대회가 마무리 되었다.

(제1회 뉴욕 세계 선교대회)의 강사로는 과테말라 공립학교 성경과목 교수사역의 박준열 목사, 워싱턴헤리티지대학교 문선희 이사장의 선교사 교육사역, '베트남의 선교대부' 장요나(장주석) 선교사의 비카라미 선교사역, 구두담이에서 미국 CPA, 극동방송 부사장까지 인생역경을 극복한 송용필 목사의 '마지막 땅끝선교'

등으로 삶의 저 밑바닥의 부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간증들을 함께 나누며 참석하신 이들에게 감동을 자아냈다. 세계선교가 지금 왜 필요한지!, 왜 해야 하는지!, 물음을 던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파송과 장학금 전달 그리고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감사와 준비위원과 회원들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헌신하고 봉사한 대회가 아니었나 싶었다. 첫째날 반주로 섬긴 이수진 전도사와 경배와 찬양을 맡은 '두나미스 찬양팀(인도: 송영희 목사)', 반주(이광선 찬양사역자), '살롬 찬양팀(인도: 이광선 찬양사역자)', 둘째날 '살롬 찬양팀(인도: 이광선 찬양사역자)', 뉴욕주찬양교회 찬양팀(인도: 배재상 집사), 셋째날 '여호사밧 찬양팀(인도: 전숙연 강도사)' 의 은혜로운 경배와 찬양 시간이었다.

집회 때마다 특송과 봉헌송으로 섬긴 이들은 첫째날 '두나미스 뉴욕맨하탄선교외침 전도팀' 과 에어로폰 연주팀(리더: 구영희 권사), 둘째날 '성음크로마하프(

단장: 김사라 목사), 이광선 찬양사역자, 펜플롯 팀(단장: 이일성 장로), 여호사밧 찬양팀(단장: 전숙연 강도사), 셋째날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회장: 이진아 목사),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단장: 최윤자 권사) 그 외 대표기도와 헌금기도, 축도로 섬기신 이들이 있어 더욱 귀한 집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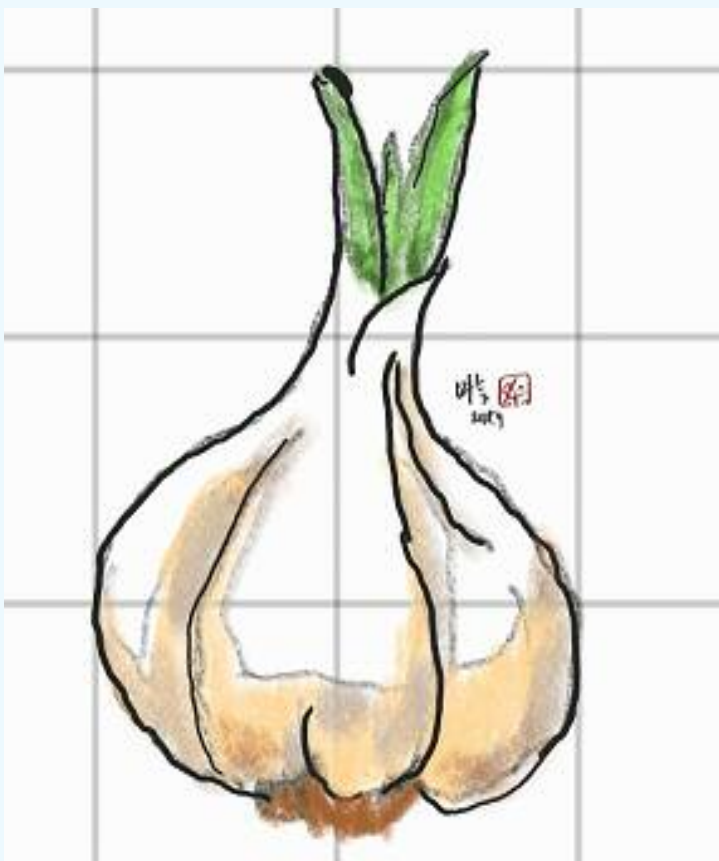
어디 그뿐일까. 언제 어디서든 말없이 찾아와 사진과 글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답하는 신문사의 대표(기자)님들이시다. 이 뉴욕 사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 전역과 한국, 전 세계에 이분들의 글과 사진들이 방송이 나가는 것이다. 얼마나 막중한 책임과 헌신과 섬김이 있었을까.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들을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이라. 그분들께 큰 박수를 드린다. 이번에도 여느 집회와 마찬가지로 참석하시고 그날그날 바쁜 중에도 기사를 올리시는 그 정성에 감동받았다.

이번 교역자연합회에서 주관한 (제1회 뉴욕 세계 선교대회)에서는 이례적으로 마지막 날에 파송과 장학금 전달과 그리고 감

사패 증정에 '특별 기자상' 이 마련된 것이었다. 글쟁이로 가끔은 기자로 일하는 내게는 아주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 '특별 기자상' 에 뉴욕의 (K굿뉴스) 대표이자 기자인 윤영호 목사님이 받게 되었다. 마음으로 감동이 흘렀다. 언제 봐어도 환한 웃음으로 누구에게나 대하시는 모습에 감사했었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시니 더욱 감사했다. 지면을 통해 다시 축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해드린다.

가끔 집회에서 보면 윤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동행하실 때가 있다. 어찌 그리 사모님도 고우신지 보는 이들에게 훈훈함을 전해준다. 우리는 이렇듯 삶에서 '예수의 향기' 가 흘러야 한다. 부부의 삶도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때가 있다. 그렇게 잘살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렇게 잘살지 못하는 부부들에게는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라. 그 모든 것들마저도 혼돈되고 불안정한 요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에 쓰임받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 ^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달래먹고 맴맴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어릴적 동요이다. 윤석중선생이 작사작곡했다. '담배먹고 맴맴, 고추먹고 맴맴~' 후자는 담배일 수없다고 했다. 오히려 달래라 하는게 옳다는 거다.
담배는 피울수 있을 망정, 먹을 수는 없다. 또한 아동들에게 담배보다는 달래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달래 역시 맵다. 사촌

인 마늘 만큼 매운 거다. 마늘만큼 한반도 살았던 사람들에게 가까운 작물도 없을 것이다. 하물며 마늘은 썩고 함께 단군설화에도 등장한다.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마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즐겨 먹는다.
단군설화에 나오는 마늘은 달래라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 했던

가. 마늘이 고려시대에 도입되었을 테니, 그럴 수 있겠다.
박용래 시인이다. 시인의 고향엔 마늘이 있었던 모양이다.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집 마늘밭에
눈은 쌓이리
(박용래, 겨울밤 중에서)

마늘은 김훈의 소설에서도 등장한다. 임진왜란 당시 참전했던 중국장수가 즐겼단다. 한움큼

을 집어 입안에 털어넣고 우적우적 씹어 먹었다 했다. 중국장수의 입에선 마늘냄새와 아울러 지독한 악취가 풍겼을 게다. 그를 만났을 이순신장군은 역겨웠을 지도 모르겠다.
이맘때면 처마말이나 담장에 걸려 있던 마늘이 떠오를 적도 있다. 어릴적에 본적이 있는데, 햇빛에 말리기 위함이다. 잘못 간수하면 썩을테니 말이다.
'껍질을 벗겨라.' 아내의 명령이다. 마늘봉지를 건네며 내게

하는 부탁이기도 하다. 마늘을 까는 일이야 그닥 어렵지 않다. 그러나 손에 배인 독한 냄새는 오래간다.
마늘이나 달래나 고추는 친척지간이겠다. 피차 맵기는 마찬가지로 일테니 더없이 좋은 관계라는 말이다. 맵지만 달텐데, 고추장이 빠지면 밍밍하다.
...과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민수기 11:5)

제 5회 뉴잉글랜드지역

동해·독도



신청서 링크

지명표기 실태조사 및 시정활동 공모전

주제

공공 장소의 지도, 출판물, 학교 교과서 및 웹사이트 등에 표시된 독도와 동해 표기 실태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현재 문제 조사 후 바른 표기 알리는 활동 및 개선 결과 소개

부문별 공모 작품유형

- 그림일기 (킨더~3학년): Letter or Legal Size, 50~250자 손글씨
- 포스터 (4~7학년): 12x18 in, 300~1000글자의 내용 별도 첨부
- 프레젠테이션 (8~11학년): 5분 이내의 PPT 활용 비디오, mp4 포맷
- 교사 보고서: 수업내용 보고서 (자유형식)

10/18/25

10/31/25

12/6/25

등록 마감

작품제출 마감

시상식

(동요합창제 직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시상 내용

- 전체 대상 '나라 사랑상' (총영사상)
- 킨더~11학년: 각 학년별 금, 은, 동
- 교사부문 별도 시상
- 참가자 전체 시상

참여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K~11학년
- 뉴잉글랜드 협의회 소속 한국학교 교사
- 개인 참여 (개인당 1작품 참여)
- 외국인 친구와 활동 참여 경우 특별 시상

심사기준

- 주제 적합성 (내용 이해 및 활동 확장성)
- 조사 & 시정 노력 및 활동에 대한 결과
- 작품 완성도 등



주최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후원



외교부



주 보스턴 총영사관

보스톤 **코리아**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교장단 및 이사회

<이 광고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편집부 권시아 학생이 제작한 광고임을 알려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강남스마일안과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망막 질환



시야가 흐릿하고 물체가 찌그러져 보일 때 단순히 노안이 아닌 망막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망막 질환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강남스마일안과 염동주 원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일상 속에서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거나 사물이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다면, 단순한 시력 저하가 아니라 눈 건강에 이상이 생긴 신호일 수 있다. 특히 중심 시야가 흐릿하거나 일부가 가려진 듯한 느낌이 든다면 망막 질환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망막은 눈의 가장 안쪽에 자리한 얇은 신경조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빛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핵심 부위다.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적인 시각 기능은 물론이고, 치료가 늦을 경우 실명까지 이를 수 있다.

자각 증상 거의 없어... 진행 후에야 발견되는 '망막 질환'

망막 질환은 대표적으로 ▲황반변성 ▲망막박리 ▲망막전막 ▲망막혈관폐쇄 ▲당뇨망막병증 등이 있다. 대부분 중장년층 이후에 발생하며,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나 노화, 유전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질환들이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일부는 시야의 일부에서만 이상이 발생해 쉽게 지나치기 쉽고, 자각했을 땐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도 많다.

망막 이상, 이런 증상 나타난다면 의심해 봐야

망막 질환은 종류마다 증상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시야 흐림, ▲왜곡된 시야, ▲눈앞에 날파리 같은 점이 떠다니는 듯한 비문증, ▲번쩍이는 섬광증, ▲시야 일부 소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히 피로하거나 안구 건조로 착각하기 쉬우나, 망막 손상으로 인한 시신경 변화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황반변성은 중심 시야를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되며 정밀한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질환이고, 망막박리는 망막이 안구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응급 질환으로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

조기 진단이 최선의 치료... 50세 이상, 정기검진 필수

망막 질환을 예방하고 실명을 막기 위해선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특히 ▲50세 이상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 ▲망막 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검사로는 ▲망막 단층촬영(OCT) ▲형광안저혈관조영술 ▲안저 촬영 ▲시야 검사 등이 있으며, 비교적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 증상 느끼면 바로 병원 찾아야

망막 질환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예를 들어 황반변성은 항체 주사치료로 진행을 늦추고,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망막박리나 전막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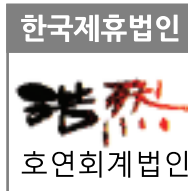
하지만 이 모든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망막이 손상되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다. 한 번 손상된 망막이나 시신경은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적 관리를 통해 건강한 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시야에 이상이 느껴지거나 평소와 다른 시각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빠르게 안과 전문의를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망막 질환"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Meet Me at

the MFA ▶▶ Fall Events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Open House

Indigenous Peoples' Day

- ▶ Monday 10/13
- ▶ 10 am–5 pm
- ▶ Free admission for MA residents



Special Event

Diwali

- ▶ Thursday 10/23
- ▶ \$5 admission after 5 pm

Special Event

UNIQLO Free Admission Day

- ▶ Saturday 10/25
- ▶ 10 am–5 pm



MFA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BostonKorea.com 광고와 함께 확실한 비즈니스 성장을 이루어 보세요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law@lookjs.com

백영주 부동산

617.921.6979
clarapaik@gmail.com

나무 건축

617.775.4771
info@namuma.com

제이슨 전 부동산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최은경 부동산

781.690.4389
Chris.choi@compass.com

캠브리지 한인교회

155 Magazine Street,
Cambridge, MA 02139

보스톤 그레이스 비전 한인 교회

910.670.4858
info@gracevisionumc.org

성요한 교회

781.861.7799
stjohns2600@hotmail.com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info@songkkimlaw.com

수잔 리 부동산

339.224.1512
susan@prorealty.group

켈리 김 모기지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Grace Kim 보험

978.800.3467
Grace.kim@ebhealth.us

Hmart
hmart.com